

제 23 장

미국의 과일 산업

이 용 선* · 심 승 보**

목 차

1. 한미 FTA 협상 및 교역 동향 2. 사과 2.1. 생산 및 수출 동향 2.2. 가격 및 품질 경쟁력 3. 오렌지 3.1. 생산 및 수출 동향 3.2. 관세감축에 따른 영향	4. 포도 4.1. 생산 및 수출 동향 4.2. 관세감축에 따른 영향 5. 배·복숭아 5.1. 배 5.2. 복숭아 6. 시사점
---	--

1. 한·미 FTA 협상 및 교역 동향

-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협상을 6차까지 진행하였다. 그간 양국은 농산물 품목에 관한 양허안을 제출하고 수정 양허안도 교환하였다. 그러나 신선 과일을 포함한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
- 미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과일 생산량이 많은 나라로서 전체 생산량의 11~12%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미국인의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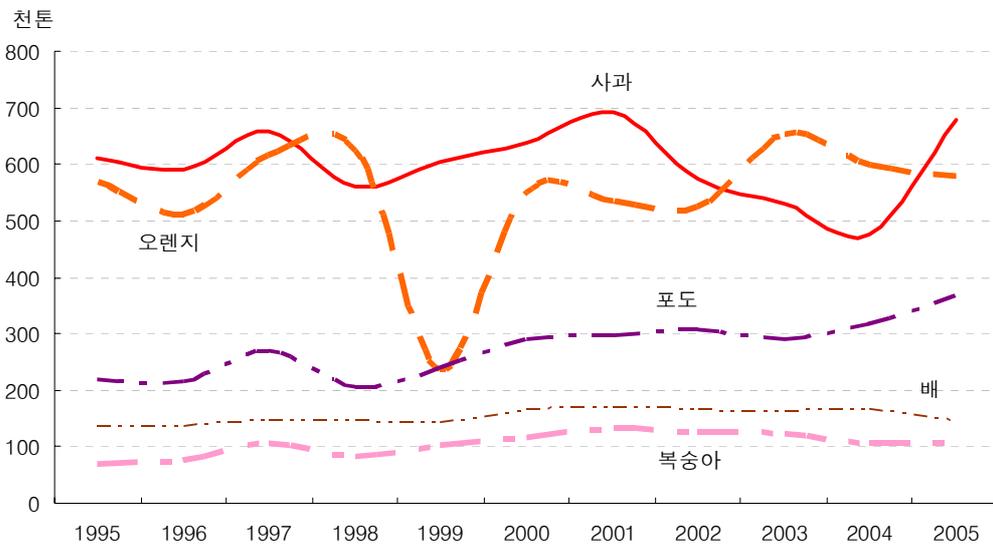
* 연구위원. yslee@krei.re.kr

** 연구원. simsb@krei.re.kr

인당 과일 소비량이 130kg(생과는 45kg) 수준에서 정체되면서 해외 수출을 통해 과일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미국은 1996년 농업법에 시장접근프로그램(market access program)을 도입하여 해외시장의 개발, 유지 등에 의한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FTA를 추진하면서 과일 수출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신선 과일은 미국 농산물 수출량의 17% 내외를 차지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국이 주목하는 분야중의 하나이다<그림 23-1>.
-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오렌지 50%, 포도와 키위 45%, 버찌(체리) 24%의 관세율 조건하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편 사과, 배, 복숭아 등은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수입허용여부를 평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23-1. 품목별 신선과일 수출량 추이



자료: 미국 농무부, Fruit and Tree Nuts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2006.

2. 사과

2.1. 생산 및 수출 동향

2.1.1. 생산·유통 현황

- 미국의 사과 생산량은 1998년 582만톤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490만톤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미국의 사과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나 단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생산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3-2. 미국의 사과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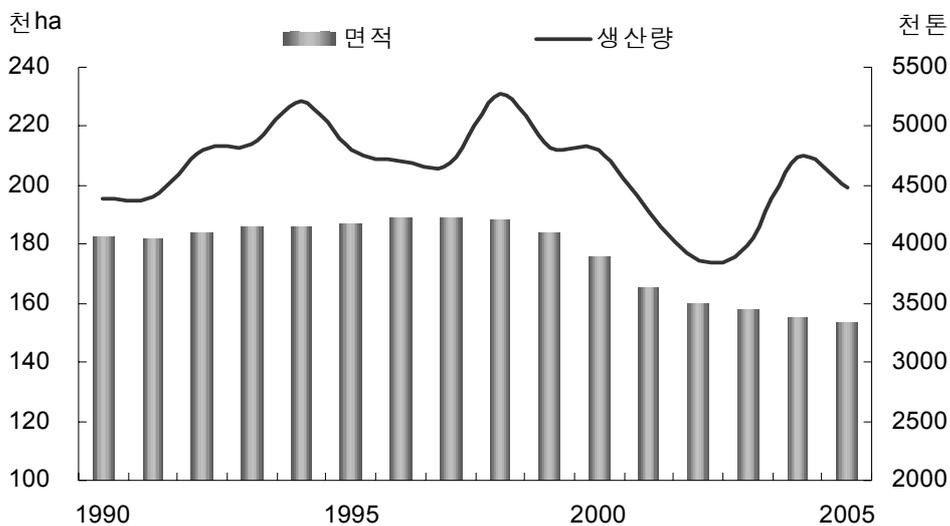


표 23-1. 연도별 사과 재배면적 및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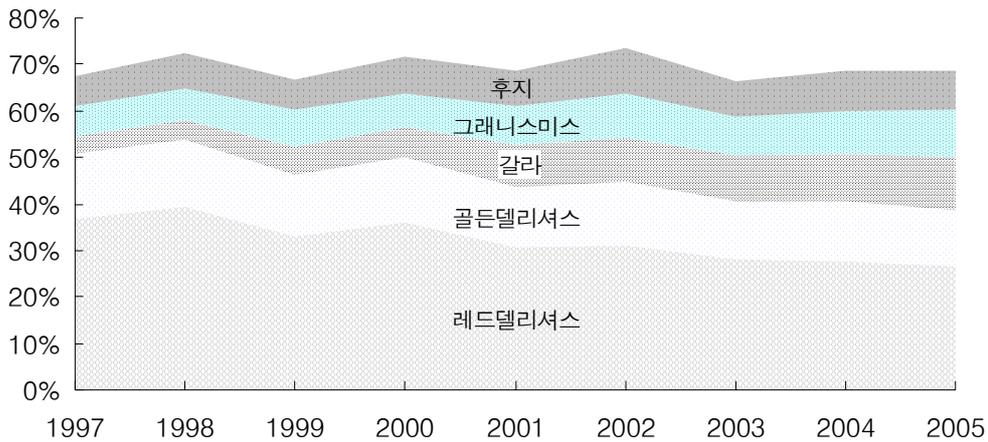
단위: 천ha, kg/10a, 천톤

	1990	1995	2000	2004	2005
재배면적	183	187	176	156	153
단 수	2,397	2,563	2,735	3,043	2,918
생 산 량	4,380	4,798	4,800	4,736	4,475

자료: 미국농무부, Fruit and Tree Nuts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2006.

- 미국의 사과 주산지는 워싱턴주로서 이곳에서 전국 생산량의 50% 정도가 생산되며, 그 다음으로 뉴욕주와 미시간주 각 10%, 캘리포니아주 6%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주산지는 고온건조한 준사막지대로 강수량이 적지만 관개시설이 발달되었으며 경사도가 낮아 농작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 미국에서 생산비중이 높은 사과 품종은 레드델리셔스로 2005년 기준으로 26%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골든델리셔스 12%, 갈라 11%, 그래니스미스 10%, 후지 8% 등의 순이다³⁾. 품종별 생산량은 근년 레드델리셔스, 골든델리셔스 등 전통적 주품종이 감소한 반면, 갈라, 후지, 그래니스미스 등의 신품종은 증가하였다. 다만 후지는 해결이 현상이 심한 가운데, 생산량은 최근 정체되고 있다.

그림 23-3. 사과 품종별 생산 비율 추이



주: 나머지 부분은 기타품종
 자료: 미국 사과협회

3) 주품종의 대부분은 생과용으로 주로 소비되나 골든델리셔스는 가공용으로도 이용된다. 한편 갈라, 후지, 그래니스미스 품종은 주로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등 서부지역에서 재배된다.

표 23-2. 사과 품종별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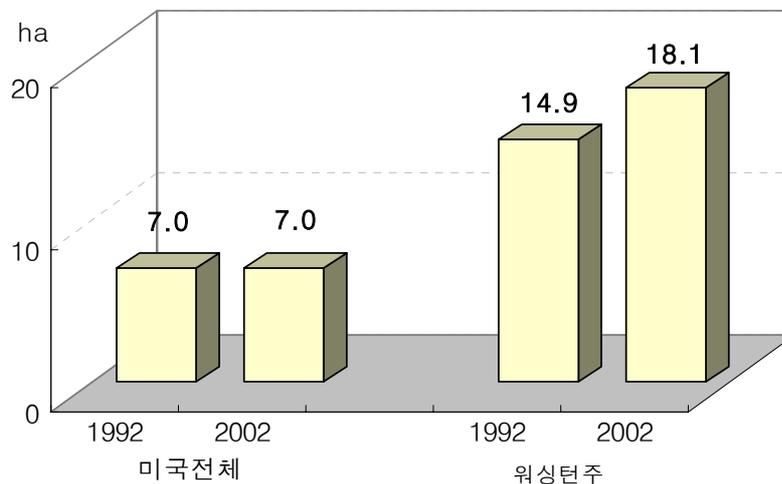
단위: 천톤

	1997	2000	2003	2004	2005
레드델리셔스	1,720	1,729	1,112	1,315	1,176
골든델리셔스	653	682	501	602	555
갈라	181	301	393	489	510
그레니스미스	310	350	345	418	443
후지	300	384	292	427	370
기타	1,518	1,356	1,346	1,477	1,408

자료: 미국 사과협회

- 미국의 사과 농장당 평균과원규모는 1992년 이후 10년간 7ha(17에이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과 주산지인 워싱턴주의 농장당 평균 규모는 2002년에 18ha로 미국 전체 평균의 2.5배 수준이며, 10년전에 비해서는 3ha 증가하였다. 40ha(100에이커) 이상의 대농이 전체의 8%에 불과하지만 전체 과원면적의 63%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10년전보다 10%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는 사과 주산지의 농장 규모는 타 지역에 비해 매우 크며 시간에 따라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23-4. 사과농장 평균 규모 변화(1992, 2002)



자료: 미국 농무부, Census of Agriculture 1992, 2002

- 규모화는 생산단계뿐 아니라 유통에 있어서도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 대형할인매장은 물론 산지의 선과장(packing house)도 통폐합에 의해 빠르게 규모화되고 있다. 사과 주산지인 워싱턴주의 사과 선과장수는 지난 20년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주산지에는 선과장 외에도 판매회사, 가공회사, 생산자단체 등이 모여 있다.
- 미국의 과원 소유 형태는 개인이 가장 많아 82%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파트너쉽, 유한회사 등이 있다. 무한책임을 지는 파트너쉽형태의 농장수는 감소하는 한편, 보다 규모가 큰 유한회사형태의 농장수는 증가하고 있다⁴⁾. 한편 과원의 수입을 주수입원으로 하는 전업적 농장의 비율은 전체 농장의 58%를 차지하며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3-3. 소유형태별 과수재배 농장¹⁾수

	1992	1997	2002
개 인	70,065 (78.4)	66,163 (77.0)	88,403 (82.1)
파트너쉽	11,077 (12.4)	10,599 (12.3)	9,738 (9.0)
유한회사	7,059 (7.9)	7,896 (9.2)	8,114 (7.5)
기 타 ²⁾	1,216 (1.4)	1,315 (1.5)	1,452 (1.3)
전 체	89,417	85,973	107,707
전업농 ³⁾	47,770 (53.4)	46,825 (54.5)	62,871 (58.4)

주: 1) 품목에 관계없이 모든 과수재배 농장을 대상으로 함

2) 협동조합, 신탁회사 등 기타 기관

3) 주수입원을 농장으로 하는 농장주

자료: 미국 농무부, Census of Agriculture 1992, 1997, 2002

- 4) 규모가 큰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일반적인 시장조사나 홍보 등을 담당해온 생산자단체, 예를 들면 워싱턴주사과협회(Washington Apple Commission)와 같은 단체의 역할은 위축되고 있다.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농장과 유통업체는 규모화되고 전업화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농장의 규모화와 기업화 추세는 토양, 수분, 전정, 수확, 농약 살포 등의 과원관리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시설을 이용한 저장, 선별, 포장, 수송, 진열 등의 수확후관리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대규모 농장의 경우, 재배에서 판매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모두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 과원 소유주의 주 연령대는 45세 이상으로 이들이 전체 농가의 84%를 차지한다. 이들 중 특히 45~64세 농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81%나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55~64세 연령대와 65세 이상의 연령대 순으로 증가율이 높다. 이와 대조적으로 34세 이하의 연령대의 농장주는 동기간 24%내외 감소하여 농장주의 연령구조가 서서히 고령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23-4. 과원 농장주의 연령대별 인원수 추이

단위: 인, %

	1992	1997	2002	증감률(02/92)
25세 이하	264 (0.6)	176 (0.4)	203 (0.3)	-23%
25~34세	2552 (5.3)	1,657 (3.5)	1,908 (3.0)	-25%
35~44세	7605 (15.9)	6,860 (14.7)	8,351 (13.3)	10%
45~54세	8,514 (17.8)	9,524 (20.3)	15,430 (24.5)	81%
55~64세	11,322 (23.7)	10,510 (22.4)	14,958 (23.8)	32%
65세 이상	17,513 (36.7)	18,098 (38.7)	22,021 (35.0)	26%
전체	47,770	46,825	62,871	32%

자료: 미국 농무부, Census of Agriculture 1992, 1997, 2002.

- 미국의 과수 농가가 고령화되면서 농작업의 대부분을 히스패닉계의 외국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이민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노동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1.2. 수출 동향

- 미국은 중국, 칠레 다음으로 사과 수출량이 많은 나라다⁵⁾. 미국의 신선사과 수출량은 2001년 71만톤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생산량 감소로 수출량도 50~70만톤에서 정체되고 있다. 미국의 신선사과 수출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5%이다. 특히 워싱턴주는 생과용 사과 재배 비율이 전체의 70% 수준으로 매우 높아 신선사과 수출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표 23-5. 국가별 신선사과 수출량

단위: 톤

	1995	2000	2004	2005
멕시코	74,367	184,636	85,540	158,347
캐나다	80,347	89,626	94,837	115,378
대만	100,863	99,242	53,298	52,341
홍콩	68,011	40,166	26,708	38,758
영국	24,670	25,466	30,518	34,274
기타	263,040	199,446	183,577	280,022
전체	611,298	638,582	474,477	679,120

자료: 미국 농무부, Fruit and Tree Nuts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2006.

- 미국의 사과 수출대상국은 멕시코, 캐나다, 대만, 홍콩, 영국 등이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인접 국가인데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영향도 있어 수출 비중이 높다. 그 다음은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 지역인데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은 정체되고 있다. 최대 수출 품종은 레드 델리셔스이나 멕시코에는 골든델리셔스를, 대만에는 후지를 주로 수출하고 있다.

5) 수출금액기준으로는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칠레에 이어 다섯번째임.

- 미국산 사과의 대만 수출가격은 2003-05년 기준 kg당 0.75달러로 국산 수출가격 2.0달러에 비해 1.25달러정도 낮다. 일본산 대만 수출가격은 국산보다 0.5달러 정도 높고, 중국산은 1.64달러 낮다. 일본산은 수출 단가가 국산에 비해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한 수출량은 국산의 4배 수준에 달하고있다. 이는 국산 사과가 고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산에 대해서는 품질 경쟁력이 취약하고 중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산과는 가격 경쟁력에서 취약하여 일부의 중고가 시장만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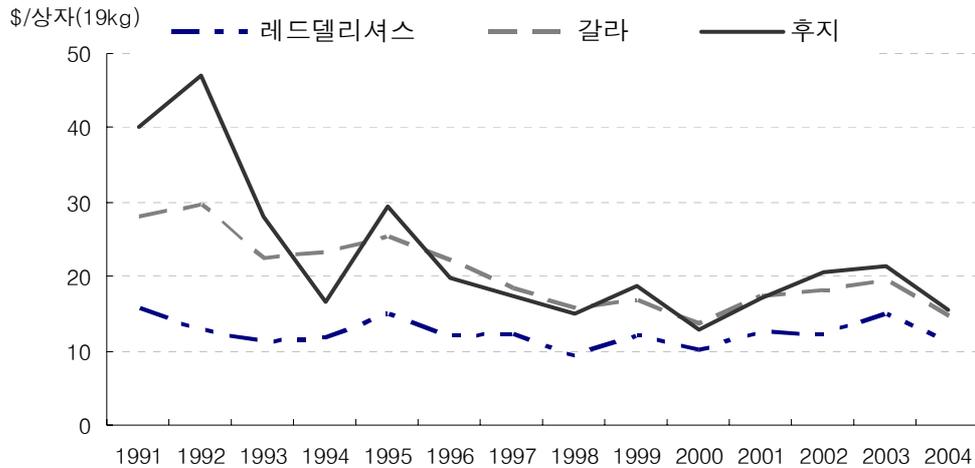
2.2. 가격 및 품질 경쟁력

2.2.1. 가격 경쟁력

- 미국은 과일 생산과 유통의 규모가 크고 전문화되어 있어 생산성이 높고, 이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높다. 미국의 신선사과 출하가격(FOB 기준)은 작황에 따라 크게 변동되며, 대체로 19kg 상자당 13~19달러에 출하되고 있다. 대표적인 세 품종의 가격을 비교하면 후지는 19달러 내외로 레드텔리셔스보다 5~6달러(48% 내외) 높고, 갈라는 17.5달러로 4~5달러(35% 내외) 높다. 한편 상자당 손익분기가격은 후지 16.7달러, 갈라 15.1달러, 레드텔리셔스는 13.2달러 수준이다⁶⁾.
- 전통적 사과 품종인 레드텔리셔스는 장기간 가격이 대체로 안정적이다. 그러나 신품종인 후지나 갈라의 가격은 도입 초기였던 1990년대 초반에는 19kg 상자당 45달러, 30달러 수준이었으나 2000년까지 하락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레드텔리셔스 가격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씩 상승한 반면, 갈라는 연평균 1%, 후지는 0.4%씩 하락하였다.

6) 최지현, 미국 사과산업의 동향과 전망, 20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23-5. 사과 품종별 수출단가(FOB 기준)



자료: Washington Growers Clearing House.

- 품종별 생산(공급)량은 레드델리셔스가 연평균 5%씩 감소한데 비해, 갈라는 13%, 후지는 6%씩 증가하였다. 레드델리셔스는 생산 감소폭에 비해 가격 상승폭이 작은 반면, 갈라나 후지는 생산 증가폭에 비해 가격 하락폭이 작다. 이는 갈라나 후지에 대한 미국의 자국내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레드델리셔스에 대한 수요는 조금 더 감소하는 한편, 갈라와 후지 등 주로 사과를 이용하는 신품종에 대한 미국내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갈라와 후지 생산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후지는 해결이나 기상변화에 의한 작황 변동으로 연도간 가격 등락이 심하므로 생산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 현재 미국산 사과는 식물방역법상 국내에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만일 미국산 사과에 대한 수입이 허용되고 미국산 사과에 대한 관세가 50% 감축된다면, 미국산 사과의 국내판매가격은 레드델리셔스, 갈라, 후지가 국산 사과의 평균가격에 비해 각각 30%, 13%, 7%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미국산 사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면, 미국산 사과의 국내판매가격은 국산에 비해 24~42%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6. 미국산 사과의 품종별 국내 예상 판매가격

단위: 원/kg

	FOB	CIF	관세 포함	관세감축시 예상가격(국내가격비)	
				50% 감축	100% 감축
레드델리셔스	651	943	1,632	1,388(△29.6%)	1,144(△42.0%)
갈라	886	1,178	2,024	1,719(△12.8%)	1,414(△28.3%)
후지	964	1,256	2,155	1,830(△7.2%)	1,505(△23.7%)

- 주: 1) 가격은 거래금액을 거래량으로 나눈 2003~05년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함.
 2) FOB는 출발항 본선인도가격으로 수출 단가이며, CIF는 FOB에 해상운임, 보험료를 추가하여 계산함.
 3) 통관비 14원/kg, 하역·내륙운송비 38원/kg, 상장수수료 5%, 수입업자이윤 10%를 적용함.

자료: 서울농수산물공사, 한국무역협회

2.2.2. 품질 경쟁력

- 국내 소비자는 고당도/중산도, 과즙이 많고 아삭거리는 육질, 선명한 붉은 색, 대과를 선호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미국산은 국산과 당도는 비슷하나 산도는 조금 높다. 미국산의 과육 조직(육질)은 국산보다 조금 떨어지며, 과실 크기는 국산보다 작다.
- 농산물의 안전성도 국내 소비자가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농약 살포 횟수는 미국이 10~12회로 우리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다. 제초제 살포 횟수도 연간 2회 정도로 적은 편이다.
- 재미 교포들에 대한 현지조사결과에 의하면, 미국산 후지는 한국산에 비해 크기와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반면, 맛, 조직감, 외관에서는 한국산보다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⁷⁾. 이 조사결과에서 주목되는 것은 각 항목별로 “매우 미흡”에서 “매우 우수”까지의 응답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는 교포들의 성향에 따라 품질에 대한 평가가 다양함을 나타낸다.

7) 김태균·조재환, “미국산 사과의 국내산 대체가능성,” 시선집중 GS&J, 2006.11.

- 국내소비자에 대한 미국산 사과 구입 의향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36%가 구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입의향이 없다는 응답자의 이유로 안전성(53%), 국산 과일 소비촉진(27%), 맛(15%) 등이 제시되었다⁸⁾. 이 조사결과는 안전성 문제가 미국산 사과 구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임을 나타낸다.

표 23-7. 국산대비 미국산 후지사과의 품질 평가(재미교포 조사결과)

단위: %

	매 우 미 흡	약 간 미 흡	비슷한 수준	약 간 우수	매 우 우수
맛	10.0	42.0	20.5	14.5	13.0
겉 모양	9.0	33.0	32.0	14.0	12.0
크 기	5.0	17.0	51.5	14.5	12.0
조 직 감	9.5	36.0	27.0	14.0	13.5
안 전 성	5.0	12.0	34.0	29.0	20.0

자료: 김태균·조재환, "미국산 사과의 국내산 대체가능성," 시선집중 GS&J, 2006.11.

- 미국산 사과의 품질경쟁력에 대한 이상의 조사결과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안전성 문제로 미국산 사과 소비가 상당히 제약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안전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산 후지 사과는 가격면에서 국산보다 우위에 있을 뿐 아니라, 비가격면에서도 국산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미국산 후지가 수입될 경우, 국산 중하품 시장에는 위협이 될 수 있다.
- 후지를 제외한 다른 미국산 품종은 국내 소비자에게 그다지 선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델리셔스계통은 맛 등에서 국내 소비자의 기호에 맞지 않으며, 갈라는 소과이며 저장성이 약해서 대량 수입될 가능

8) 김경필, "국내 주요과실 외국산에 대한 소비자 구입의향 분석," 식품유통연구, 2006.12.

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경우 후지를 포함하여 미국산 사과 수입이 미미하다.

3. 오렌지

3.1. 생산 및 수출 동향

3.1.1. 생산 동향

- 미국의 오렌지 생산량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해 1998년 1,240만톤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생산량은 1,000만톤 내외 수준이다.

표 23-8. 연도별 오렌지 재배면적과 생산량

단위: 천ha, kg/10a, 천톤

	1990	1995	2000	2004	2005
재배면적	242	312	330	309	299
단수	2,904	3,323	3,568	3,781	2,812
생산량	7,026	10,371	11,791	11,677	8,393

자료: 미국 농무부, Fruit and Tree Nuts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2006.

- 미국의 오렌지 생산량은 플로리다주와 캘리포니아주가 각각 940만톤, 210만톤으로 전체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75%, 24%를 차지한다. 그러나 플로리다주는 주로 가공용 오렌지를 재배하는 데 비해 캘리포니아주는 거의 생과용을 집중적으로 재배하여 대조적이다. 플로리다주가 고온 다습한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온난하고 건조한 기후를 갖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적합한 재배 품종이 다르다.
- 2000년대 들어 플로리다주의 오렌지 연간생산량은 정점을 이루었던 1990년대 후반에 비해 40만톤(5%) 감소하였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이전에 비해 조금 적은 210만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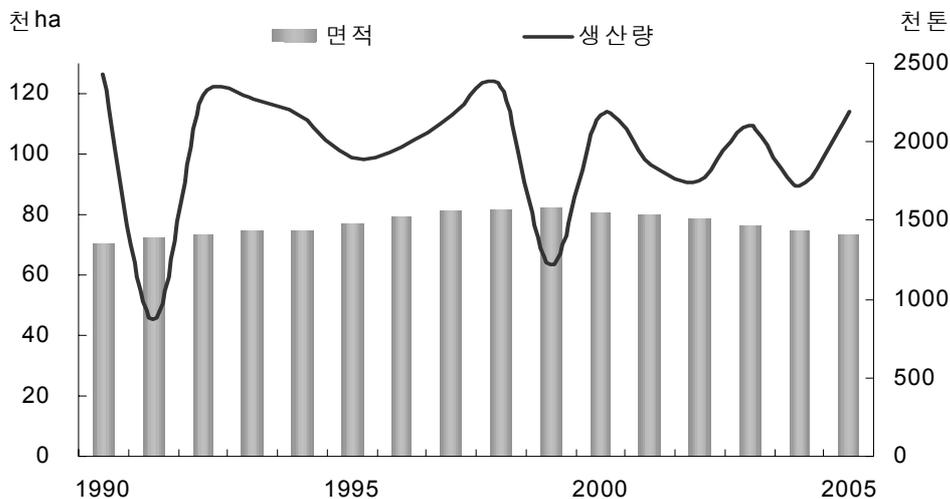
표 23-9. 기간별 미국 주산지의 오렌지 연평균 생산량 추이

단위: 천톤

연도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미국전체
1971-75평균	7,093	1,638	266	164	9,161
1981-85평균	5,926	2,132	157	99	8,314
1991-95평균	7,721	2,096	18	67	9,902
1996-00평균	9,833	2,183	59	47	12,122
2001-05평균	9,427	2,121	76	21	11,652

자료: 미국 농무부, Citrus 2006 Summary.

그림 23-6.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 생산 동향



- 미국 오렌지 전체생산량중 조중생종(네블 포함)과 만생종(발렌시아)의 비율은 6:4 정도로 조중생종이 많다. 같은 품종이라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산의 가격이 높는데 이는 캘리포니아산 오렌지가 주로 생과용으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의 네블 가격은 발렌시아보다 대체로 높다⁹⁾. 그러나 플로리다산 발렌시아의 가격은 조중생종에 비해 높은데, 이는 발렌시아 품종이 가공용으로 적합하기 때문이다.

9) 2003년산과 2005년산은 캘리포니아산 발렌시아의 생산량이 크게 줄어 일시적으로 네블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다.

표 23-10. 오렌지 품종별 생산량 및 가격 비교

단위: 백만상자, \$/상자

	생산(이용)량					상자당 가격				
	2001	02	03	04	05	2001	02	03	04	05
오렌지전체	284	267	295	217	207	6.37	5.80	5.88	6.68	8.44
조중생/네블	162	156	167	125	122	6.30	5.56	5.56	6.55	7.78
캘리포니아	32	42	40	44	46	12.88	7.98	10.66	9.82	9.66
플로리다	128	112	126	79	75	4.94	4.82	4.26	5.03	6.85
발렌시아	122	111	127	92	85	6.46	6.12	6.27	6.86	9.37
캘리포니아	20	20	11	21	12	7.51	6.53	12.48	8.38	11.29
플로리다	102	91	116	71	73	6.30	6.05	5.79	6.50	9.12

주: 상자당 무게는 캘리포니아 75파운드, 플로리다 90파운드임.

자료: 미국 농무부, Citrus 2006 Summary

- 캘리포니아주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오렌지 산지로서 네블과 발렌시아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 생과용으로 보다 적합한 네블의 생산량은 연간 150만톤으로 발렌시아의 2~3배 수준이다. 최근 발렌시아 생산량은 감소하는 한편, 네블 생산량은 연평균 5~6만톤 증가하고 있다. 발렌시아 품종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네블 품종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단수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3-11. 캘리포니아주 네블오렌지 생산동향

단위: ha, kg/10a, 천톤

연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1989/90	42,930	3,511	1,507
1994/95	47,790	2,495	1,191
1999/00	51,030	2,667	1,361
2002/03	51,840	2,701	1,395
2004/05	53,824	2,781	1,497
2005/06	54,634	2,833	1,548

자료: 미국 농무부, Citrus 2006 Summary

3.1.2. 수출 동향

- 미국의 오렌지 수출량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 65만톤에서 정점을 이루었으며, 그 이후 생산량의 감소로 수출도 60만톤 이하 수준에서 정체되었다. 미국의 오렌지는 생산량의 6% 내외가 생과 형태로 수출되고 있다. 생과이용량의 대부분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되는 데, 캘리포니아주 생과이용량의 25% 이상이 해외로 수출된다.
- 미국의 오렌지 수출량은 인접국가인 캐나다가 가장 많으며, 한국은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과 홍콩에 대한 수출은 1990년대에는 각기 16만, 12만톤을 상회하였으나 최근에는 각 8만톤, 7만톤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표 23-12. 국별 오렌지 수출량 추이

단위: 톤

	1995	2000	2004	2005
캐나다	176,696	169,956	176,075	171,022
한국	15,288	70,873	140,590	118,563
일본	166,264	107,439	81,924	82,199
홍콩	122,040	99,369	74,498	69,456
중국	430	16,412	29,918	33,391
기타	85,270	87,526	93,370	103,229
전체	565,988	551,576	596,375	577,859

자료: 미국 농무부, Fruit and Tree Nuts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2006.

3.2. 관세감축에 따른 영향

- 현재 오렌지는 50%의 관세율 조건하에서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오렌지의 95%는 미국산이다. 현행 오렌지 수입량은 국내 과일 시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오렌지와 관련한 한미 FTA 협상 결과와 그것이 미칠 영향은 주요 관심사다.

- 미국산 수입오렌지에 대한 관세가 50% 감축된다면(즉 관세율이 25%로 인하된다면) 오렌지 수입 가격은 17% 내외 하락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은 현재의 수준보다 22~40% 증가한 16~19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미국산 오렌지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면 오렌지 수입 가격은 33% 내외 하락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은 현재의 수준보다 43~80% 증가한 19~24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산 발렌시아 오렌지는 향후 칠레산 네블 오렌지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 미국산 수입오렌지에 대한 관세가 50% 감축된다면, 미국산 오렌지의 국내판매가격은 현재보다 12%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미국산 오렌지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면, 미국산 오렌지의 국내가격은 현재보다 29% 낮은 kg당 1,15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13. 관세 감축에 따른 미국산 오렌지의 국내 예상 판매가격

단위: 원/kg

CIF	국내가격	관세감축시 예상가격(국내가격비)	
		50% 감축	100% 감축
951	1,616	1,426(△11.7%)	1,153(△28.6%)

- 주: 1) 가격은 거래금액을 거래량으로 나눈 2003~05년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함.
 2) CIF는 해상운임, 보험료가 포함된 도착항 인도가격임.
 3) 통관비 14원/kg, 하역·내륙운송비 38원/kg, 상장수수료 5%, 수입업자이윤 10%를 적용함.
- 자료: 서울농수산물공사, 한국무역협회

4. 포도

4.1. 생산 및 수출 동향

4.1.1. 생산 동향

- 미국의 포도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2000년대 들어 38

만ha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미국의 포도는 재배면적이 정체되어 생산량은 그 해 작황에 따라 600~70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23-14. 연도별 포도 재배면적 및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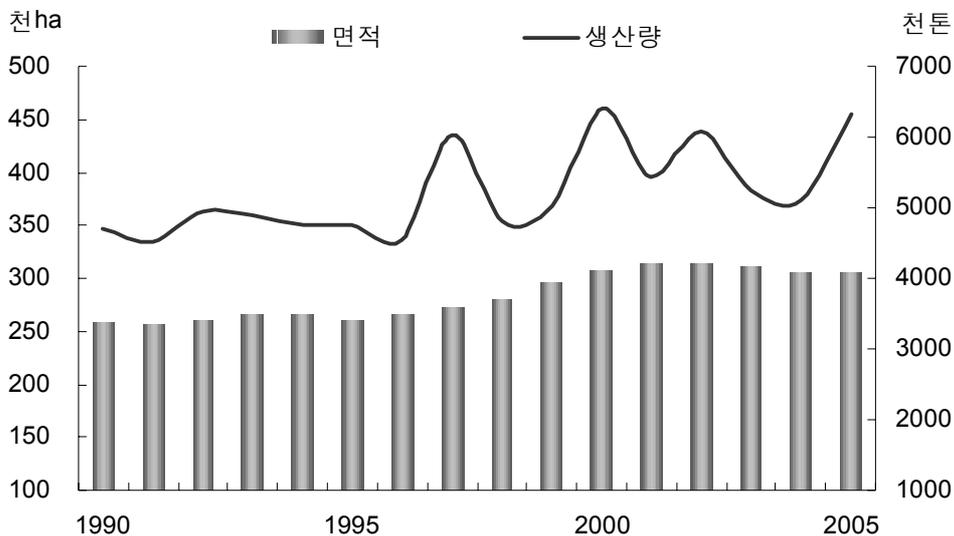
단위: 천ha, 천톤, kg/10a

	1990	1995	2000	2004	2005
재배면적	299	317	384	378	378
단수	1,715	1,696	1,814	1,499	1,877
생산량	5,135	5,372	6,974	5,661	7,102

자료: 미국농무부, Fruit and Tree Nuts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2006.

- 캘리포니아주 포도는 2005년 기준 미국 전체 포도 재배면적의 80%,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캘리포니아산 포도를 수입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포도 재배면적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00년 이후 정체되어 30만ha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생산량은 600만톤 내외 수준이다.

그림 23-7. 캘리포니아주의 포도 생산 동향



- 미국산 포도의 총이용량은 2000~04년간 연평균 690만 톤 수준인데, 이 중 13%에 해당하는 89만 톤은 생과용으로 이용되고 이를 제외한 87%는 모두 가공용으로 이용된다. 포도 생산량의 대부분이 가공용으로 이용되긴 하지만, 지난 20년간 생과용 포도 생산량은 41% 증가한 데 비해 가공용 포도 생산량은 28% 증가한 데 그쳤다. 즉 생과용 포도 생산량의 증가율이 가공용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과용 수요가 높아 신선 포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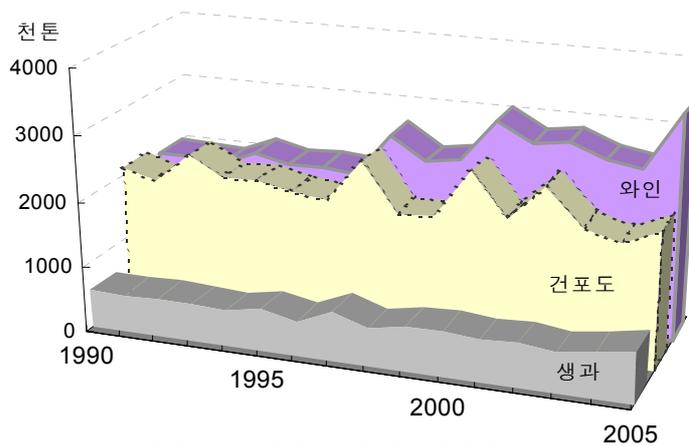
표 23-15. 미국의 용도별 포도 이용량 추이

단위: 천톤

기간	생산·이용량		용도별이용량	
	총생산량	이용량	생과용	가공용
1980-84(a)	5,468	5,295	630	4,665
1985-89	5,607	5,612	779	4,833
1990-94	5,833	5,826	806	5,021
1995-99	6,165	6,158	845	5,313
2000-04(b)	6,896	6,862	888	5,974
b/a	1.26	1.30	1.41	1.28

자료: 미국농무부, Fruit and Tree Nuts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2006,

그림 23-8. 캘리포니아주의 용도별 포도 생산량 추이



자료: 미국 농무부 농업통계국 캘리포니아사무소

- 캘리포니아 주의 생과용 포도 재배면적은 2000년까지 증가추세였으나 그 이후 3만 8천 ha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생과용 포도는 단수가 증가하여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포도주용 포도 재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생산량이 350만톤에 이른다. 생과용이나 포도주용이 증가하는 것과 반대로 건포도는 생산량이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다. 건포도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4.1.2. 수출 동향

- 미국은 연간 포도 생산량의 15%에 해당하는 34만톤 내외의 물량을 수출하고 있다. 이중 캐나다로의 수출이 9~10만톤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출국이 다변화되면서 캐나다로의 수출 비중은 30% 정도로 감소하였다. 특히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대만 등 아시아로의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23-16. 국가별 신선 포도 수출량

단위: 톤

	1995	2000	2004	2005
캐나다	102,902	95,529	101,520	99,972
멕시코	11,188	40,109	38,294	47,142
말레이시아	6,470	10,936	33,718	38,852
홍콩	28,159	35,486	22,777	29,777
중국	44	9,105	13,736	29,063
대만	12,784	20,364	10,209	22,377
기타	57,782	78,394	97,443	99,959
전체	219,329	289,924	317,697	367,142

자료: 미국 농무부, Fruit and Tree Nuts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2006.

4.2. 관세감축에 따른 영향

- 현재 포도는 45%의 관세율 조건하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포도의 2할 정도는 미국산이며 나머지 8할은 칠레산이다. 한편 두 나라에서 수입하는 포도는 비슷한 것으로서 레드글러

브(Red Globe)나 씨없는 품종(Seedless) 등 껍질채 먹는 종류다. 다만 미국산과 칠레산은 수입 시기가 달라 서로 다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미국산 수입 포도에 대한 관세가 50% 감축된다면(즉 관세율이 22.5%로 인하된다면) 포도 수입 가격은 16% 내외 하락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은 현재의 수준보다 23~43% 증가한 2,500~3,000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미국산 포도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면 포도 수입 가격은 31% 내외 하락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산 포도 수입량은 현재의 수준보다 47~87% 증가한 3,000~4,000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산 수입포도에 대한 관세가 50% 감축된다면, 미국산 포도의 국내 판매가격은 현재보다 12%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미국산 포도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면, 미국산 포도의 국내가격은 현재보다 29% 낮은 kg당 1,15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17. 관세 감축시 포도 국내 예상 판매가격

단위: 원/kg

CIF	국내가격	관세감축시 예상가격(국내가격비)	
		50% 감축	100% 감축
2,222	3,812	3,197(△16.1%)	2,621(△31.3%)

- 주: 1) 가격은 거래금액을 거래량으로 나눈 2003~05년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함.
 2) CIF는 해상운임, 보험료가 포함된 도착항 인도가격임.
 3) 통관비 14원/kg, 하역·내륙운송비 38원/kg, 상장수수료 5%, 수입업자이윤 10%를 적용함.

자료: 서울농수산물공사, 한국무역협회.

- 이상과 같이 신선 포도의 수입가능량이 그다지 많은 수준은 아니며 오히려 포도주, 주스 등 포도가공품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시장접근전략도 포도주나 주스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5. 배·복숭아

5.1. 배

5.1.1. 생산 및 수출동향

- 미국은 중국,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배 생산이 많은 국가다. 미국의 배 재배면적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완만히 감소하여 2005년 현재 2만 5천ha이다. 미국의 배 생산량은 2000년대 들어 감소하는 추세이며, 2005년에는 75만톤 수준이다. 한편 미국의 배 재배 품종은 주로 Anjou, Bartlett 등의 서양배이다.

표 23-18. 연도별 배 재배면적과 생산량

단위: 천ha, kg/10a, 천톤

	1990	1995	2000	2004	2005
재배면적	28	28	27	26	25
단 수	3,112	3,058	3,327	3,075	2,973
생산량	873	860	901	797	748

자료: 미국 농무부, Fruit and Tree Nuts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2006.

- 미국의 배 주산지는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 등이다. 이 중 워싱턴주가 전체 생산량의 50%, 캘리포니아주와 오레곤주가 각 25%, 24%를 차지한다.
- 미국의 배 수출량은 1994년 NAFTA 체결 이후 증가해왔으나 2000년대 들어 14~17만톤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미국의 배는 주로 멕시코와 캐나다로 수출되며, 일부는 브라질, 러시아, 네덜란드 등으로 수출된다.

표 23-19. 국가별 신선 배 수출량 추이

단위: 톤

	1995	2000	2004	2005
멕시코	25,624	82,159	77,674	64,395
캐나다	43,236	46,828	50,313	43,620
브라질	21,929	7,120	4,771	4,219
러시아	1,001	146	3,339	3,744
네덜란드	5,373	2,751	2,230	3,566
기타	36,426	26,463	27,696	24,410
전체	133,589	165,466	166,023	143,954

자료: 미국 농무부, Fruit and Tree Nuts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2006.

5.1.2. 가격 및 품질 경쟁력

- 현행관세가 적용되어 미국 배가 수입될 경우 국내 예상 판매가격은 1,729원으로 국내의 배 평균 거래단가(1,768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관세가 50% 감축된다면, 미국산 배의 국내판매가격은 국산에 비해 17%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관세가 철폐된다면, 미국산 배의 국내판매가격은 국산 배에 비해 32%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20. 미국산 배 국내 예상 판매가격

단위: 원/kg

배	FOB	CIF	관세포함	관세감축시 예상가격(국내가격비)	
				50% 감축	100% 감축
	680	1,001	1,729	1,470(△16.8%)	1,211(△31.5%)

- 주: 1) 가격은 거래금액을 거래량으로 나눈 2003~05년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함.
 2) FOB는 출발항 본선인도가격으로 수출 단가이며, CIF는 FOB에 해상운임, 보험료를 포함하여 계산함.
 3) 통관비 14원/kg, 하역·내륙운송비 38원/kg, 상장수수료 5%, 수입업자이윤 10%를 적용함.

자료: 서울농수산물공사, 한국무역협회

- 미국의 배는 주로 서양배로 우리나라 소비자의 기호에는 잘 맞지 않으며,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재배되는 신고 등 동양배도 수분이 적어 육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에게는 선호되지 않을 것이다.

5.2. 복숭아

5.2.1. 생산 및 수출동향

- 미국의 복숭아 재배면적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1990년대 초 7만ha 이상이었으나 2000년 이후 5만 7천 ha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단수는 꾸준히 증가해 복숭아 생산량은 100만톤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23-21. 연도별 복숭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천ha, 천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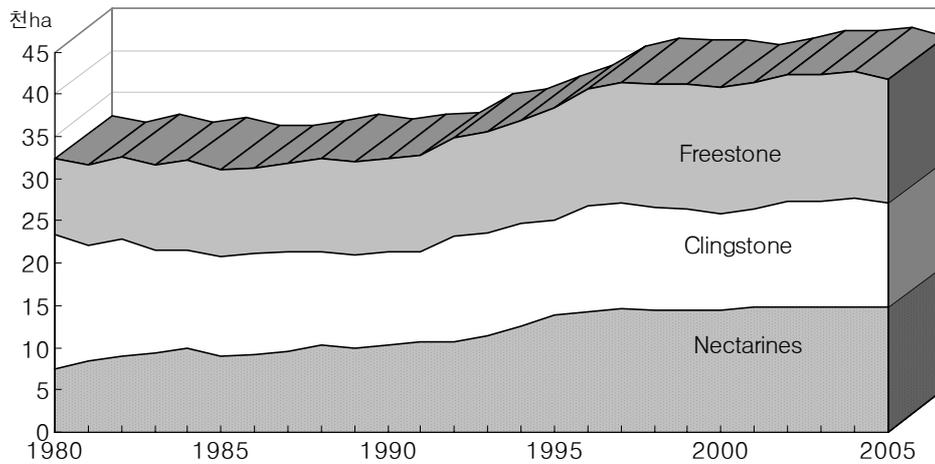
	1990	1995	2000	2004	2005
재배면적	83	80	76	74	72
생산량	1,227	1,198	1,400	1,430	1,292

주: 천도계 포함.

자료: 미국 농무부, Fruit and Tree Nuts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2006,

- 미국의 복숭아 종류는 크게 털복숭아(peach)와 천도복숭아(nectarine)로 구분할 수 있다. 털복숭아는 다시 생과용 털복숭아(Freestone Peach), 씨앗과 분리가 잘 되지 않아 주로 통조림으로 쓰이는 가공용 털복숭아(Clingstone Peach)로 구분된다. 미국의 복숭아 최대 주산지는 캘리포니아주다. 이 주에서는 미국 생과용 털복숭아의 55%가 생산되며, 가공용 털복숭아와 천도복숭아의 대부분이 생산된다.
- 캘리포니아주 복숭아 재배면적(성과수 면적)은 1990년대에 크게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4만 2,500ha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복숭아 종류별 재배면적은 생과용 털복숭아와 천도복숭아가 1990년대에 증가하여 각 15,000ha 수준이며, 가공용 털복숭아는 1980년대에 감소하여 12,500ha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3-9. 캘리포니아 품종별 복숭아 재배면적 추이



자료: 미국 농무부 농업통계국 캘리포니아사무소

- 미국의 복숭아 수출량은 2001년 13만 톤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감소해 10만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으로의 수출이 2001년 이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산 복숭아의 최대 수출국은 캐나다로 전체 수출물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만과 멕시코에 대한 수출량이 많다.

표 23-22. 국가별 복숭아 수출량

단위: 톤

	1995	2000	2004	2005
캐나다	40,616	50,143	56,846	54,631
대만	9,835	40,772	26,241	28,209
멕시코	11,674	15,497	14,800	15,009
홍콩	1,126	1,623	2,167	1,791
뉴질랜드	189	839	976	1,434
기타	3,293	6,729	4,879	4,310
전체	66,731	115,603	105,910	105,384

주: 천도계 포함.

자료: 미국 농무부, Fruit and Tree Nuts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2006.

5.2.2. 가격 및 품질 경쟁력

- 현행 관세율 적용시 미국산 복숭아 판매가격은 국내가격보다 kg당 400원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관세가 철폐될 경우 미국 복숭아는 국내 가격보다 15% 낮은 수준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23. 미국산 복숭아 국내 예상 판매가격

단위: 원/kg

	FOB	CIF	관세포함	관세철폐시 예상가격(국내가격비)
복숭아	1,064	1,413	2,416	1,685(△14.7%)

- 주: 1) 가격은 거래금액을 거래량으로 나눈 2003~05년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함.
 2) FOB는 출발항 본선인도가격으로 수출 단가이며, CIF는 FOB에 해상운임, 보험료를 포함하여 계산함.
 3) 통관비 14원/kg, 하역·내륙운송비 38원/kg, 상장수수료 5%, 수입업자이윤 10%를 적용함.

자료: 서울농수산물공사, 한국무역협회

- 미국산 복숭아는 한국산과 기호가 다른 품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과일의 크기, 육질 등의 측면에서 국산보다 취약하다. 미국산 털복숭아는 후숙 속도가 빠르므로 장거리 수송에 따른 품질 저하가 예상되며, 신선도 등 품질 유지를 위한 저온유통(cold chain)을 위한 비용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천도 복숭아는 유통기간이 긴 편이어서 미국산이 수입될 가능성이 털복숭아에 비해 높다.

6. 시사점

- 미국은 과일 생산과 수출에 있어 강대국이다. 미국은 과일 생산과 유통 과정이 규모화되어 있어 과일산업의 생산성이 우리나라에 비해 높고 가격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 정부의 수출장려제도가 해외시장의 개발과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미국 과일산업은 농장주의 고령화와 노동력 확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농장주의 연령은 차츰 고령화되고 있고 청년층은 감소하고 있다. 가지치기(전정)에서 수확까지의 과원 작업을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노동력을 멕시코인 등의 히스패닉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민법의 강화와 인건비 상승이 과원 경영의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농장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도 쉽지 않은 상태다.
-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오렌지, 포도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사과, 배, 복숭아 등은 식물방역법에 의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고 관세가 철폐되거나 크게 감축된다면, 오렌지, 포도의 수입량은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국산 과일에 대한 대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사과, 배, 복숭아 등에 대한 수입금지조치가 해제되어 이들 과일에 대한 수입이 이루어질 경우, 품종과 조건에 따라서는 국산 과일에 예상치 못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 농산물에 대한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신선 과일에 대한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거나 관세감축 이행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허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역조건 충족에 관한 평가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병충해에 의한 피해는 물론 수입허용에 따른 국내과일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평가 작업이 단계별로 엄격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국내과일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산 과일의 안전성을 확립하는 등 생산과 유통상의 비가격적(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